경선 불참 노관규·탈당 미루는 황일봉 셈법은?

노시장, 지방의원 선거구도 연계 무소속 가능성

황청장, 광주시장 후보 재심 결과 보며 저울질

노관규 순천시장과 황일봉 광주남구청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노 시장은 경선 규칙에 반발, 불참을 선언한 뒤 암중모색하고 있고, 황 구청장은 탈당 선언을 하고도 탈당계 제출을 늦추고 있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 후보 등록 마감시간인 지난 17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이후 어떤 정치적 행보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노 시장은 "현 순천지역지원장인 서갑원 의원의 방해공작에 의해 불공정 경선이 될 것으로 판단,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경선을 방해한 서 의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해 달라고 중앙당과 전남도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즉, 무소속 출마를 암시하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정가에서는 노 시장이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하자 무소속 출마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시민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를 제압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노 시장은 이후 10여일 이상

노관규 순천시장

황일봉 남구청장

정치적 행보나 발언을 삼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시장 주변에서는 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고 재보선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서갑원 의원의 재판결과 여하에 따라 10월께 재보선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노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순천지역 지방의원 경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될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노 시장 측은 동부권에서 이성웅 광양시장과 전경태 전 구례군수가 무소속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진·신안·화순·장성 등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소속 연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일봉 남구청장**=지난 5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도 28일 현재까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황 청장은 당시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방법으로 중앙당이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한데 대해 반발하며 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었다.

황 청장은 측은 탈당계 제출 지연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 후보등록과 함께 탈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 청장은 강운태 의원의 광주시장 경선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탈당계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즉각 탈당계를 제출했겠지만, 중앙당이 재심을 받아들일 경우 강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탈당할 경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다음달 3~4일께 탈당계를 제출한 뒤 후보등록과 함께 6일쯤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재심 신청' 끝이 안보인다

광주 북구 지방의원 이어 여수시민 시장경선 재조사 청원

김길원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도 신청 예정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 경선에 대한 재심 신청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길원 민주당 광주시의원(광산 제3선거구) 예비후보는 28일 "후보 경선이 불·탈법적으로 치러진 만큼 원천무효"라며 "당원투표인명부 보존 신청과 경선 결과 원인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경선 선거인 명단은 애초 중앙당이 결정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명단 선정을 광주시당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선거인단 명부 사전 유출 이후 경선 하루 전 갑자기 명부가 배부된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거인단 수가 추가로 83명이 늘어나면서 특정 후보가 구의원으로 활동했던 지역에 집중됐다"며 "선거인 명부의 중복 명단도 10명에 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광주 북구(을)지역 지방의원 당원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도 이날 선거인 명부 사전유출과 부정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구의원 후보 선출대회' 무효주장과 함께 광주시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전우근·오주섭·최희동·진귀수·형순태·오광록·김조순·표범식 예비후보는 이날 "지난 25일 전남대체육관에서 치러진 지방의원 선출대회는 선거인 명부가 사전 유출됐는지를 알고도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진행했다"며 "선거인단 명부에 전화번호가 없는 76명이 포함돼 있고 한 주소지에 무려 7~8명이 등재돼 있는 것을 보면 선거인 선정과정에 부정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민 1만여명도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민 1만여명은 이날 '민주당 경선 재조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제출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불공정 경선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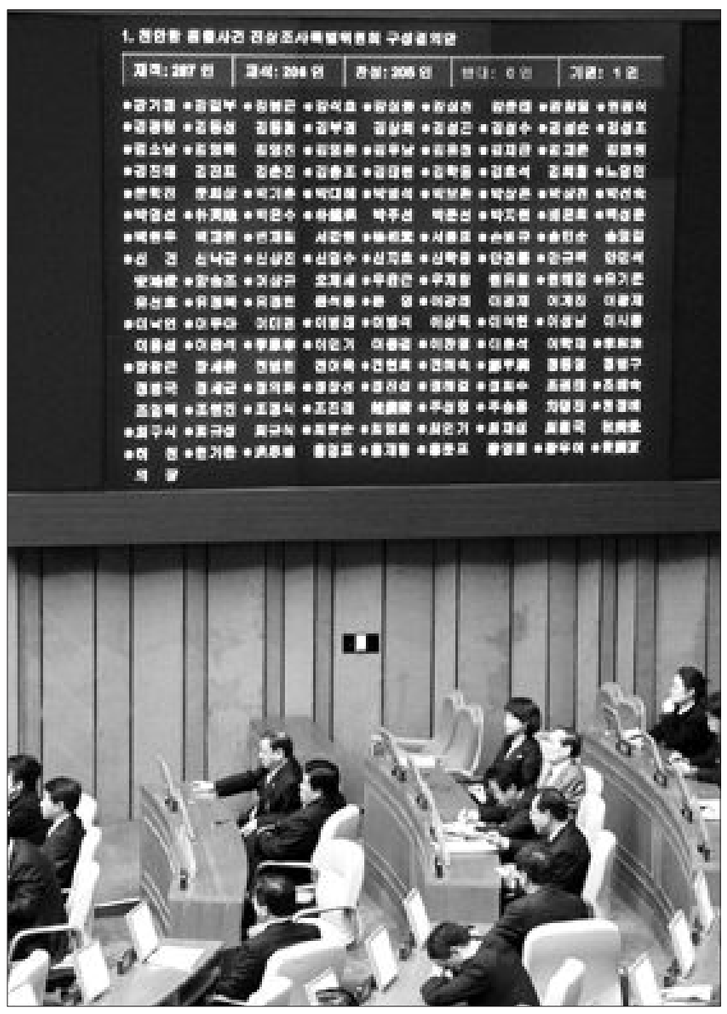
이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15일 여론조사를 하면서 수신 가능한 전화를 사용함으로 피조사자 1인이 수차례 역발신을 통한 응대를 한 점이나 본인 여부 확인도 없이 지지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불법과 불공정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론조사를 하면서 상대 후보측의 약력을 누락시킨 점이나 전수 당원조사를 해야 함에도 많은 당원들이 누락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명백한 불공정 여론조사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재심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당원 경선에 반발한 후보들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의를 갖고 이의신청 13건 중 광주 동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양혜령 광주시의원 경선 후보 등이 제기한 광주 동구 지역 당원경선 선거인대회의 경우 선거인단 명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오는 30일 재논의키로 결정을 보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천안함 조사특위 통과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천안함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특위는 여야 10명씩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27일까지 2개월간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 및 군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연합뉴스

■ 지방선거 핫코너

박준영 천안함 영결식 선거 운동 중단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천안함 46 용사'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하루 동안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용사 46명이 보여준 조국에 대한 숭고한 헌신과 값진 희생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며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순국 장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전 국민적 애도분위기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영결식 날인 29일 하루 동안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정원박람회 정부지원 이끌 것"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는 28일 "국제적인 약속인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순천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원박람회로 순천시의 '재정악화설'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순천시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김영남 "광주시의원 중간평가해야"

김영남 민주당 광주시의원(서구 제3선거구) 예비후보는 28일 "광주시의원에 대한 광주시민과 지역구민의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임기 내 아무런 제재조치나 평가 없이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 조직만 관리하면 계속해서 시의원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러한 악순환은 시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진보신당 구의회 폐지 반대

국회 차원의 '구의회 폐지' 방침에 민주노동당과 진보 신당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7개 특별·광역시 구의회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에 대한 폭거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구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구의회가 폐지되면 오히려 뿌리까지 관료주의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차량

음향차량,LED차량(1.5t,2.5t,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학점은행제포함), 자산운용관리사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등 개발업무 3년간 종사자, 개발법인 3년간 법인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 원 장 이명규교 수 062-670-2421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아파트론 -無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